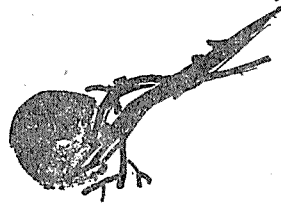


세균 이야기



가장 무서운 세균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야토병균(野兔病菌)』으로서, 단 1마리로서 『알카로시스』, 『후란시스 병』, 『메꾸라아부 열(熱)』 등으로 불리는 야토병을 발병시킨다. 이 병의 치사율(致死率)은 5~8%나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욱 독성이 강한 것은 『보쓰리누스』균 A형으로서 남자 어른이 0.12 마이크로그램에 죽는다(1 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그램).

그러니까 이 세균 410그램만 있으면 인류를 사멸시킬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보쓰리누스』균은 잘 번식도 안하지만, 자기증식(自己増殖)도 하지 않는다. 이 균은 『아세틸코린』의 유통을 억제하고 그 결과로서 근육→신경에의 전달을 저지시킴으로써 마비, 질식을 시키게 되고, 죽임에 이르게 한다. 영국에서 1922년 8월에 이 중독증이 대량 발생, 8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이 병이 처음 생긴 것은 182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페스트』도 독성이 강한 균인데, 3,000개의 세균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

아갈 수 있다고.

최대의 「박테리아」

『박테리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해양성(海洋性) 세균인 『베기아드아·미라비리스』로서 몸 두께는 16~45 미크론, 몸 길이는 수 미리나 된다고.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큰 세균이다.

지독하게 강한 『박테리아』

『미크로콥스·라디오듀랜스』라는 이름의 세균은 사람의 평균치사량(650 렌트겐)의 1만배의 방사능 650만 렌트겐을 쬐어도 죽지 않는다고. 이놈에게 『수폭(水爆)세균』이라고 이름을 붙여 줬던.

하늘 꼭대기에 사는 박테리아

1967년 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가비』의 일종인 『페니시리움』은 자그마치 고도(高度) 41,148미터에서 살고 있더라고.

<1970년판 GUINNESS BOOK 중에서>